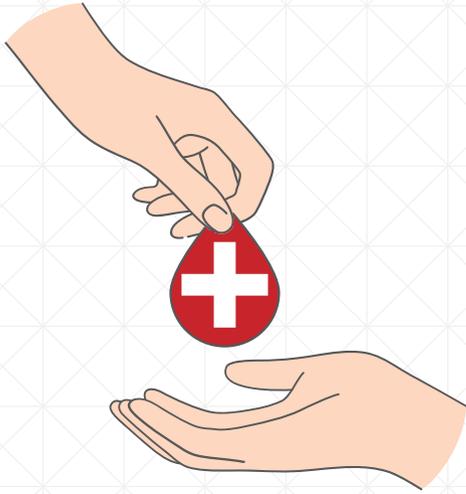


같이 보기

: 학교헌혈증진 자문위원 위촉식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실천, 헌혈

헌혈 증진을 위한 한 발자국

대한산업보건협회 학교헌혈증진 자문위원 위촉식

글 편집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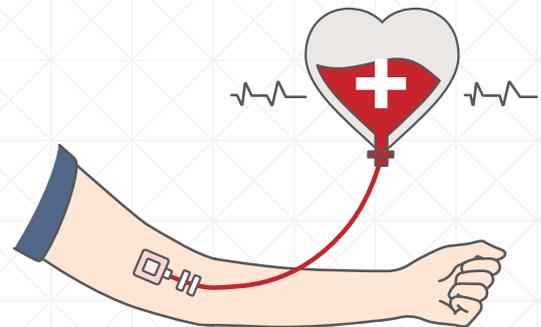
코로나19가 우리 삶을 지배했던 지난 2년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했지만, 특히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는 헌혈 수급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 이에 대한산업보건협회는 헌혈 증진과 한마음혈액원의 혈액사업 안정화를 위해 학교헌혈증진 자문위원 위촉식을 가졌다.





고귀한 실천, 헌혈의 필요성

헌혈은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과학이 발전한 현대 사회에서 혈액은 아직까지 인공적으로 만들거나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헌혈은 일정한 조건만 갖춘다면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다. 때문에 헌혈은 간단한 행동으로 생명을 살리는 고귀한 행동이다. 그런데 최근 2년 동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며 헌혈자가 큰 폭으로 줄었다. 그 때문에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리면서 헌혈 과정에 대한 안전조치 강화와 함께 헌혈 참여에 대한 독려가 이어졌지만, 현재 혈액 보유량은 적정량인 5일분에 크게 못 미쳐 혈액 수급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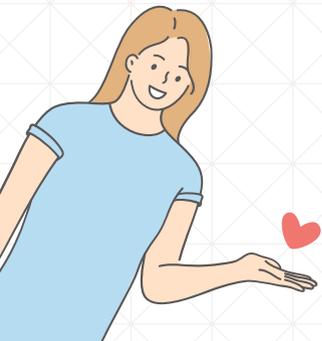


같이 보기

: 학교헌혈증진 자문위원 위촉식



이에 따라 대한산업보건협회가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섰다. 그 중 하나가 바로 학교 단체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학교헌혈증진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이었다. 협회는 지난 5월 25일, 경기도 군포에 소재해 있는 한마음혈액원에서 백헌기 대한산업보건협회 회장, 정호영 사립학교교장회 회장 등 다양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헌혈증진 자문위원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를 통해 협회는 헌혈의 필요성과 혈액수급의 위기에 대해 알리는 시간을 가졌는데, 대한산업보건협회 및 한마음혈액원에 대한 소개와 함께 사립학교교장회 소속의 퇴직 교사 12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해 학교 단체헌혈 장려에 앞장설 것을 독려했다.



학교 단체헌혈 독려를 위한 첫 발

우리나라 최대 산업보건 전문기관으로 1963년 비영리 기관으로 설립된 대한산업보건협회는 지난해 말 기준 의사, 간호사, 산업위생기사, 인간공학기사 등 1,686명의 산업보건 전문가가 노동자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이번 위촉식이 열린 한마음혈액원은 대한산업보건협회 부설 기관이자 국가기반시설로 국가 혈액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단체로 국내 혈액 사업을 다변화하여 안정적인 혈액 수급과 안전한 혈액 공급을 위해 지난 2002년 5월 개소하였다.



한마음혈액원은 보건복지부의 지도·감독하에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지원받아 서울 및 경기 지역에 헌혈카페 19곳과 헌혈버스 8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중부지역 단체헌혈 활성화를 목표로 2021년 3월에 대전지역에 지역출장소를 개소하였다. 이러한 사업의 연장으로 이번 위촉식은 특히 혈액 사업 안정화를 위해 학교 단체헌혈을 장려하기 위하여 진행하게 된 것이다. 이날 행사에서는 12명의 자문위원에게 위촉장과 배지를 수여하고 한마음혈액원 황유성 원장의 인사말에 이어 혈액원 곳곳을 둘러보는 순서로 이어졌다. 곧이어 자문위원 각각의 인사말과 함께 앞으로 자문위원 운영과 활동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안내와 질의응답 등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백헌기 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 헌혈량이 크게 줄었다”며 “국가 헌혈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단체헌혈을 중심으로 헌혈량 늘리기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